



학부모님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교육감이 된 후로 저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긴 시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건강 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기량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글을 쓰는 이유 입니다.

이번 주 눈과 얼음 등의 겨울 날씨 때문에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휴교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이는 많은 직원이 여러 시간 도로 상태와 기상정보 등을 모니터하고 결정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 상황 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에 학생들이 저에게 트위터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 했습니다. 어떤 트윗은 지혜와 재치가 넘치고 예의 바르게 저에게 좀 더 잠을 잘 수 있거나 과제물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를 휴교해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트윗은 공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트윗 은 저와 다른 사람들을 위협 또는 협박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부모님들께 알렸 습니다. 이 트윗에는 걸잡을 수 없는 인종적 욕이나 악담이 담겨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이런 행동은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151,000 아이들의 교육감인 저의 책임에 영향을 주어 우리 아이들이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사용 하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자신의 기기를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교육구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늘린 시기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부모 위치권(loco parentis)*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저와 다른 교육자는 학교 건물에서 아이들의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은 트윗 중 어떤 내용은 많이 충격적이어서 학교장과 우리 안전팀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너무 과한 대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희도 또한,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사무실에 도전이 되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과의 일상대화에서 적절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시간 기기들을 사용해야 할까? 하루에 몇 번씩? 사진을 찍도록 허용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등. 저의 아이들은 아직 인터넷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 아이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는 벌써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세계의 많은 긍정적 요소들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온라인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요?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om 122 ♦ Rockville, Maryland 20850 ♦ 301-279-3381

저는 우리 집에서나 우리 학교와 교육구에서나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테크놀로지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신중하고 힘든 대화일 것입니다.

제 트위터에 적절하지 못한 트윗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 대의 뇌는 긴 시간 사고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처럼 행동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이 따르는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경찰과 부모님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올린 내용이 영구적이고 이것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런 트윗을 안 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교육구 학생들의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테크놀로지 사용을 돕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아이 들과 어른들 사이 모두에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사이버상에서의 예의(cybercivili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학교와 학생 가족들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이끌어줄 자료와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리게 될 정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여러분께 자녀들과 온라인에서 적절한 것과 적절치 못한 것들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가 13 세 미만일 경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3 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규정이나 지침 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3 세 이상일 경우, 우리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와 휴대폰 등의 전화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리는 글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웹사이트([www.montgomeryschoolsmd.org](http://www.montgomeryschoolsmd.org))에는 우리 아이들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사이버상의 예의(cybercivility)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이메일 [Joshua\\_Starr@mcpsmd.org](mailto:Joshua_Starr@mcpsmd.org) 해주시거나 트위터 [@mcpssuper](https://twitter.com/mcpssuper) 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Joshua P. Starr, Ed.D.  
Superintendent of Schools